



## 치솟는 기름값... 서민경제 파탄 위기

### “유류세 하루빨리 내려라”

국제 유가의 폭등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 운행이나 난방 등을 위한 유류가 이미 생필품으로 정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소비억제를 위해 편성된 유류관련 각종 세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관련기사 10면>

경신했다. 또 난방유인 등유도 지난주보다 7.55원 씩 1ℓ 당 966.5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이처럼 올랐다고는 하나, 기름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데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소비자가격의 60%대에 육박한다. 경우도 50%에 달하고 있

은 1ℓ 당 869원으로, 중유(60.7원)의 14배에 달했다. 이처럼 유류세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한데 정부는 최근까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유류세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국 중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높은 세율이 유지돼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세금의 5분의 1인 26조원을 유류세로 채웠는데, 세원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유류세 인하를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 소비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정유회사들의 악습을 차단하고,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발유 1ℓ 당 1532원 = 유류 649원 + 세금 883원  
산업용 중유의 14배 달해... “서민들만 봉” 반발

다. 지난 2·4분기 휘발유 1ℓ 평균 가격은 1천532원으로, 이는 공장도가 593원(38.7%), 교육세(79원)·주행세(139원)·부가세(139원)·교통세(526원) 등 각종 세금 883원(57.6%), 유통마진 56원(3.7%)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1천532원을 지불하고 1ℓ의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했을 경우 물건값 649원에 883원의 세금을 지불한 셈”이라며 “소비자들만 ‘봉’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와 산업용 제품인 중유의 세금차이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휘발유의 세금

부가 유류세 인하를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 소비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정유회사들의 악습을 차단하고,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박모(4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기름을 평평 써달라 사람은 없다”면서 “정부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서민들을 호도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서민들의 고통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유류세 조정문제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종태기자 jtleee@



김우식(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과기부총리와 페르미노프(여섯번째) 러시아 우주청장관이 30일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한·러 우주 장관회담을 마친 후 내년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될 바이코누르 기가린 발사장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양국 우주협력 상징기념물 제막식을 갖고 있다. /고흥=위직량기자 jrwi@

### “위성발사체 설계도 週內 인도”

韓·러 과기장관, 조인트벤처·액체로켓 실무협 구성 합의

#### ▶러 우주청장관 인터뷰 3편

한국과 러시아가 우주협력 강화에 합의해 내년 우리나라의 자력 위성발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아나톨리 니콜라예비치 페르미노프 러시아 연방우주청 장관은 30일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말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소형위성 발사체 발사와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 사업 등 양국 간 우주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우주·전자 부품 분야의 조인트벤처 설립과 액체로켓 연구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국산 소형위성 발사체 KSLV-1의 상세설계도를 금주 안에

한국 측에 인도하면 한국이 이를 검토해 결과를 러시아에 통보하고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합동 검토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TSA)’ 발효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이 더욱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또 내년 4월 한국 첫 우주인

배출사업과 관련해 한국 측의 소유즈 우주선 발사 관련자 및 참여자 명단을 발사 45일 전까지 러시아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우주·전자 조인트벤처 설립과 한·러 액체로켓 연구개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한 뒤 페르미노프 장관이 내년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될 바이코누르 기가린 발사장서 가져온 돌로 만든 양국 우주협력 상징기념물 제막식도 가졌다.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 로스쿨 5대권역별 배분 설치

(광주·서울·부산·대구·대전)

교육부, 132개 심사기준 확정...내달 말까지 접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수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비율, 내신반영비율 등 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인가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관련기사 9면> 교육부에 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기로 했다. 서울 권역은 서울과 경기·인천·강원, 대전 권역은 대전과 충남·충북,

대구 권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 권역은 부산과 경남·울산, 광주 권역은 광주와 전남·전북·제주 등이다.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배점은 총 1천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로 가장 높고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

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4.8%) 등이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를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宋외교, 주한 외교단에 여수엑스포 지지 요청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주최 연례 오찬에 참석,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주한 상주 대사와 대사 대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모로코,

폴란드 등과 결합 중인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임제정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방한중인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의 예방을 받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피코 총리는 “모로코와 결합중인 세계박람회 선정에서도 여수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뒤 임 의장의 슬로바키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우체국택배

고객사랑의 약속!  
우체국 서비스현장을 적극 실천 하였습니다.  
꽃은 전남제신점

인터넷 www.ePOST.kr ☎1588-1300

EVER RICH 우체국택배보험

우체국쇼핑